

#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경로모형 분석

권영채<sup>1</sup>, 정추영<sup>2</sup>, 서영숙<sup>2\*</sup>

<sup>1</sup>가야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 Validation of a Path Model for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Young-Chae Kwon<sup>1</sup>, Chu-yeong Jeong<sup>2</sup> Young-sook Seo<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Kaya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Daegu Health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경로모형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 416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PASW 21.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자기 효능감은 주관적 행복감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대해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자기 효능감이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는 주관적 행복감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대해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등의 요인을 고려한 행복감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주제어 :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주관적 행복감,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itness of a path model for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social support,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consisted of 416 nursing students, and data were collected during from 10 March to 10 April, 2017,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s that used PASW 21.0, and AMOS 18.0.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ere correlation self-esteem, social support,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of in nursing students. Second, There were self-esteem,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showed direct effects on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while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showed indirect effects on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Third,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showed direct effects on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whil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showed indirect effects on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Self esteem, and social support showed direct effects on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The hypothetical path model for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was proven correct. Based 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sign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emphasizes the enhancement of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in order to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Self-efficacy, Soci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Young-sook Seo(seo1657@hanmail.net)

Received November 28,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Revised December 29, 2017

Published January 28,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자료에 의하면 1인당 국민 총소득생산(gross national income, GNI)은 \$27,756이며, 1인당 국민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29,115로 세계경제순위 195개국 중에서 30위를 차지하였다[1].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5.83점(10점 만점)으로 155개국 중에서 56위(155개국)를 차지하였고, 삶의 질은 4.95점(10점 만점)으로 61개국 중에서 47위로 거의 하위권 수준이었다[2].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타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주관적 행복감이 낮게 보고되어[3-5], 많은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 연령대별 행복지수는 20대, 10대 순으로 낮게 보고되었고[6], ‘한국 청소년이 인식하는 주관적 행복지수’ 국제비교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7]. 또한 10-20대 주요 사망원인은 자살이었고, 20대의 자살율은 타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1]. 20대는 향후 우리사회의 미래주역으로, 이 시기의 행복감에 대한 경험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5]. 그러므로 청년층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3-5].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20대의 대표주역들이다. 이 시기의 많은 대학생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위해 진로선택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8,9].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고등 교육환경은 입시중심 교육과 게다가 청년실업문제로 취업이 잘되는 간호학과를 선호하여 부모나 교사 등 주변의 권유하는 경우가 65.5%로 보고되었다[9]. 이처럼 일부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대학으로 입학하게 되고, 이들은 결국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이론교육량과 더불어 학기내 임상실습 교육 등을 이수하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8], 결국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과 개인의 행복감을 저하시키게 된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향후 예비전문간호사로서 우리나라의 미래 건강관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9] 대학생 시기의 행복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행복은 개인이 생활에서 느끼는 충분한 만족과 흐뭇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개인이 삶속에서 느끼는 만족도의 주관적 의미이다[10]. 지금까지 행복과 관련된 초기 연구는 연령, 결혼여부, 경제수준, 건강수준 등 객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행복은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므로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행복결정과 주관적 관련요인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행복은 각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관적 행복감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11].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된 대부분 연구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과선택시기, 가정경제의 만족도, 학과성적 등의 객관적 요인과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회복탄력 심리적 요인,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인지적 요인, 우울의 정서적 요인, 친구 지지, 사회적 지지의 사회적 요인 등의 주관적 요인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들 변인중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으므로, 주어진 상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므로[12] 결국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이다[13]. 특히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특정한 과제에 대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4]. 특히 간호대학생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 해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전공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교수 등을 포함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으로, 특히 간호대학생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상승되고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10,15]. 즉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간호학문의 교육과정을 대하는 태도로서[9],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학업을

이수하는 과정에 대한 만족하게 되므로 결국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16]과 전공만족도[5,16]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8, 16-18].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므로[14,19],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행복감에 직·간접적인 인자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고, 전공만족도는 매개효과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주관적 요인에서 개인의 특징인 심리적 요인, 정서적 요인, 인지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요인 등의 관련변인을 알아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 변인들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인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관계에서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도출된 변인들과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가설적 경로모형과 실제자료간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경로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수정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경로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2017년 3월 기준 P지역과 B지역에 소재하는 4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편의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연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연구자료는 연구목적만으로 사용할 것,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가능함, 연구참여에 대한 비밀보장과 익명보장 등을 안내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고 연구대상자가 서면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공분산 구조분석에서 본 연구의 추정모수치가 20개 이내로 고려할 때, 표본의 크기가 추정모수치의 10배 이상[20]을 근거로 하여 본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표본크기는 400명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편의표집 대상자의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목표대상자는 440명으로 진행하였고, 불성실한 자료 34부를 제외하고 41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고 설문에 대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종교, 학년 등과 함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지원동기, 건강상태, 학업성적, 경제만족도, 실습경험 유무 등[21]을 포함하였다.

#### 2.3.2 주관적 행복감

본 연구에서는 Lyubomirsky와 Lepper [23]의 주관적 행복 척도 (subjective happiness scale)을 Kim [24]이 번안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문항으로 각 문항의 점수범위는 '매우 행복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행복하다' 7점까지의 7점 Likert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 Cronbach's  $\alpha$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81이었다.

#### 2.3.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2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self-esteem scale) 도구를 Jeon [26]이 번안하여 타당도

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 문항으로, 각 문항의 점수범위는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eon [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86이었다.

### 2.3.4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는 Zimet, Dahlem, Zimet, Parley [27]이 개발한 지각된 다차원적 사회적 지지 도구(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지지 4문항, 친구지지 4문항, 중요타인 지지 4문항으로 총 12문항이다. 또한 각 문항은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80이었다.

### 2.3.6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Illinois 대학에서 Braskamp, Wise와 Hengstler[31] 등이 개발한 학과평가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Kim과 Ha[32]이 수정변안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적 만족 7문항, 교과만족 3문항, 관계만족 3문항, 인식만족 5문항, 학교만족, 재학 중 진로전환, 졸업 후 진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교만족 문항은 연구취지와 맞지 않은 경우 제외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각 문항의 점수범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3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83이었다.

##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21.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검증,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상관관계, 정규성 검증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형의 구조 경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확인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평가는 절대부합지수로  $\chi^2$  로 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측정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eigen value)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5 이상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자아존중감의 문항에서 4문항, 사회적 지지의 문항에서 2문항, 자기효능감의 문항에서 1문항, 전공만족도 문항에서 2문항, 주관적 행복감의 문항에서 1문항이 요인 적재치가 미달되어 분석항목에서 제외하였다. 각 변수의 Chronbach's  $\alpha$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86, 사회적지지 .80, 자기효능감 .82, 전공만족도 .83, 이었고, 주관적 행복감은 .81이었다.

### 4.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평균 21.02세이었고, 성별은 ‘여학생’이 86.5%이었으며, 종교는 ‘무교’가 63.9%, 학년은 ‘2학년’이 34.3%, 간호학 선택동기는 ‘주변인의 권유’가 29.3 전 학기 평균 학점은 ‘3.0-3.5’가 35.6%,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47.6%, 경제상태는 ‘보통이다’가 49.8%, 임상실습 경험은 ‘예’가 73.1%로 확인되었다<Table 1>.

### 4.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기술통계와 제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분석 결과 연구변수에서 왜도(skewness) 절대값 3이하와 첨도(kurtosis)는 절대값 10이하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연구변수의 정도와 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3.34점/5점, 사회적 지지는 3.43점/5점, 자기효능감은 3.47점/5점, 전공만족도는 3.73점/5점, 주관적 행복감은 6.23점/10점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 $r=.49, p<.001$ ), 자기효능감( $r=.45, p<.001$ ), 전공만족도( $r=.51, p<.001$ ), 주관적 행복감( $r=.56,$

$p < .001$ )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 $r = .44$ ,  $p < .001$ ), 주관적 행복감( $r = .48$ ,  $p < .001$ )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는 전공만족도( $r = .61$ ,  $p < .001$ ), 주관적 행복감( $r = .49$ ,  $p < .001$ )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공만족도는 주관적 행복감( $r = .53$ ,  $p < .001$ ) 간의 정적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본 연구변수의 다중공선상의 검증 결과, 모든 연구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73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Tolerance limits)는 .53-.69으로 모두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5-1.90으로 모두 10을 넘지 않아 본 연구의 연구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lt;Table 1&gt;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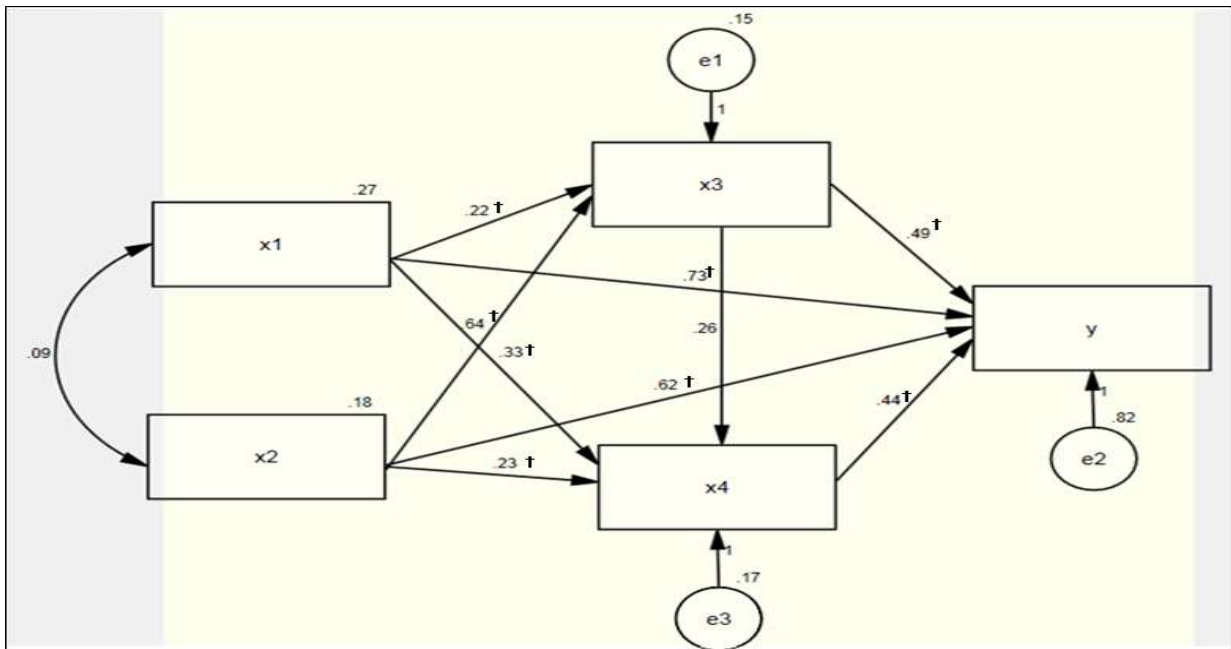
Variables	Categories	n (%) or Mean±SD	
		21.02 ± 2.78	
Age (year)	<19	129	31.0
	20~21	181	43.5
	≥22	106	25.5
Sex	Male	56	13.5
	Female	360	86.5
Religion	Yes	150	36.1
	No	266	63.9
Grade	Freshman	112	26.9
	Sophomore	143	34.4
	Junior	69	16.6
	Senior	92	22.1
Reasons for selecting nursing	Aptitudes	98	23.6
	Getting a job easily	101	24.3
	Professionals	56	13.5
	Other's recommendation	122	29.3
	others	39	9.4
Academic score	≥4.0	68	16.3
	≥3.5-4.0	146	35.1
	≤3.0-3.5	148	35.6
	<3.0	54	13.0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Good	120	28.8
	Moderate	198	47.6
	Bad	98	23.6
Economic status	Above hight	77	18.5
	Middle	207	49.8
	Under middle	132	31.7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04	73.1
	No	112	26.9

&lt;Table 2&gt;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416)

Variables	X1	X2	X3	X4	Y
	r (p) or Mean±SD				
X1	1	.51*	.37*	.45*	.56*
X2		1	.44*	.53*	.48*
X3			1	.61*	.49*
X4				1	.53*
Total	3.34±0.52	3.73±0.52	3.43±0.43	3.47±0.47	6.23±1.30
Skewness	0.47	0.11	0.68	0.43	0.17
Kurtosis	0.58	0.58	0.11	0.09	0.58

X1=Self-esteem; X2=Social support; X3=Self-efficacy; X4=Major satisfaction; Y=Subjective happiness.



[Fig. 1] A path diagram of the study.

X1=Self-esteem; X2=Social support; X3=Self-efficacy; X4=Major satisfaction; Y=Subjective happiness.; † p<.001.

<Table 3> Goodness for fit tests

(N=416)

Goodness	CMIN(x2/df)	p
Hypothetical path model	89.10	.001

CMIN=Chi-square value.

<Table 4>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for path model

(N=416)

Parameter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P	CR	R²
		$\beta$ (p)					
X3							.44
	X1	.22*		.22*	.037	5.98	
	X2	.64*		.64*	.045	14.23	
X4							.39
	X1	.33*	.06*	.38*	.041	8.01	
	X2	.19*	.14*	.33*	.057	4.00	
	X3	.25*		.25*	.050	5.26	
Y							.49
	X1	.30*	.11*	.41*	.097	7.52	
	X2	.21*	.16*	.37*	.129	4.28	
	X3	.20*	.05*	.24*	.102	4.32	
	X4	.18*	.	.18*	.113	4.23	

X1=Self-esteem; X2=Social support; X3=Self-efficacy; X4=Major satisfaction; Y=Subjective happiness.; † p<.001. SP=standardized parameter; CR=critical ratio.

#### 4.4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경로계수 추정치, 효과분석

본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지수는  $\chi^2$ 값 89.10 (p<.001), 본 연구에서의 가설적 모형은 포화모형이므로  $\chi^2$ 값의 적합도는 완전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RMR GFI, AGFI, NFI의 적합지수는 검증할 필요 없이

경로모형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에서 설정한 경로계수와 유효성 검증은 모든 연구변수들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로모형은 [Fig. 1]과 같다 <Table 3>.

또한 모형의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경로는 자아존중감( $\beta=.22, p<.001$ ), 사회적 지지( $\beta=.64, p<.001$ )이었고, 또한 전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자아존중감( $\beta=.33, p<.001$ ), 사회적 지지( $\beta=.19, p<.001$ ), 자기효능감( $\beta=.25, p<.001$ )이었고,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경로는 자아존중감( $\beta=.30, p<.001$ ), 사회적 지지( $\beta=.21, p<.001$ ), 자기효능감( $\beta=.20, p<.001$ ), 전공만족도( $\beta=.18, p<.001$ )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 <Table 4>.

이상의 결과에서 각 변인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효과는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등의 유의한 직접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들 연구변수 중에서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총효과가 가장 높은 변수는 자아존중감이었고,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순이었다. 이들 변수는 주관적 행복감을 44.0%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대한 효과는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직접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들 연구변수는 전공만족도를 39.0% 설명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효과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직접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들 연구변수는 자기효능감을 44.0% 설명하였다<Table 4>.

## 5. 고찰 및 제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찰하여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로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모형에서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과 동시에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확인되어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행복감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되었다. 먼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관

적 행복감이 높다는 것은 자아존중감[16,21]과 사회적 지지[19], 자기효능감[8,14], 전공만족도[5, 9, 16, 18]가 주관적 행복감의 예측변수로 보고한 결과와 일관된다.

주관적 행복감 대한 총 효과 수준을 고려한다면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에게 있어서 전공과 같은 학업성취 면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사회적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는 성인초기에 주어진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행위를 수행하는데 자신에 대한 신념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개인보다 친구와 가족 등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친구, 이웃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보고한 결과[18]를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들은 행복은 향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되는 직무를 수행하므로 간호사의 행복은 국민의 행복과도 관련성이 높다[9]고 보여진다.

한편, 전공만족도의 변수는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직접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총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자아존중감이었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로 나타나 이경로모형의 예측변수들이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하는 정도가 49.0%로 나타나 예측력이 높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으나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5, 9, 16, 18]. 이처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으므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등의 심리적 변수와 사회적 변수, 전공관련 변수 등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행복감 증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수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의 예측변수로 보고한 결과[14]와 일관된다. 자아존중감[14], 사회적지지[18,19,28], 자기효능감[5]과 전공만

죽도 간의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전공학문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인생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보고되었다[30,32]. 또한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의미하며[9], 이러한 경험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소질, 흥미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이후 간호직의 업무수행도가 높음을 감안할 때, 대학시기에 전공학문의 경험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믿음, 학교와 가정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수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28,30]와 사회적지지[19]가 자기효능감의 선행변수로 보고한 결과와 일관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잘해낼 수 있다는 신념과 기대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32],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내적요인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외적요인인 사회적 지지, 학과특성인 전공만족도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행복감에 효과가 높게 보고되어, 이에 대한 내적요인인 심리적 변수를 우선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 모색을 기초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중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하는 모형구축을 통해 내적요인과 외적요인, 학과특성 등을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였으므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후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향상 프로그램을

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고찰하여 인과관계를 경로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등의 예측변수들이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에 향을 주어 주관적 행복감에 간접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주관적 행복감에 간접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위한 경로모형은 간명하고 적합한 모형임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고, 이를 기초로 주관적 행복감 향상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학과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관적 행복감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전문직 적응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7 <http://kostat.go.kr/potal/korea/kor-nw/2/1/index.board?bmode=read&bSeq=348565&Ttarget=title&sTxt>
- [2] Korea in the World 2016,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Report No.: Research Paper 2016.
- [3] S. G. Kim , Y. S. Jang , H. S. Jo, HS, M. S. Cha, "A Study of Determinants and Indicators of Happiness among Koreans",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port No.: Research Paper 2008.
- [4] E. M. Sung, G. H.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nalysis among happiness, personal traits, and environmental traits of adolescen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4, No 4 pp. 177-202, 2013.
- [5] J. H. Kim, H. O. Jeon,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Focused on



- Psycho-social Factors”,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25, No. 2, pp. 123-132, 2016.
- [6]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534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5342)
- [7] Statistics Korea. 2015 death cause for Korea [Internet]. Daejeon: Author;2016 [cited 2016 September 27].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7/index.board](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7/index.board).
- [8] S. A. Ahn, M. Y. Sim,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efficacy on Collegr Studen Stress and Subjetive Happiness”*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 NO. 10, pp. 7021-7033, 2015.
- [9] M. H. Nam, M. R. Lee, “Factors Inflence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363-374, 2014.
- [10] M. S. Jung, Y. S. Kang, M. H. Ko, D. H. Kim, S. Y. Kim, E. K. Kim, Nursing conceptual theory, Hyunmunsa, 2012.
- [11] Calculation and Comparison of Well-being Indicator for OECD Countries.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port No.: Research Paper, pp. 86-98, 2010.
- [12] S. J. Lee, J. S. J. Lee, J. H. Yu, “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Vol. 22, No. 3, pp. 589-607, 2008.
- [13] Y. S. Seo, C. Y. Jung, Y. C. Kwon, “Effect of Education in Cadaver Practice on the Self-Efficacy, Attitudes to death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 15, No. 5, pp. 317-324, 2017.
- [14] D. J. Kim, J. S.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244-254, 2014.
- [15] N. S. Ha, G. S. Han, & Choi J.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Stress Way of Coping, and Stress Respons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Academy of Nursing*. 2012.
- [16] S. H. Lee, B. Y. Chung, S. H. Kim, “Influence on Subjective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9, No 1, pp. 115 - 126, 2015.
- [17] G. Y. Jo, H. S. Park,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Journal of Korean. Acad Soc Nurs Educ* . Vol. 22, No. 3, pp. 294-303, 2016.
- [18] Y. S. Kim, M. Y. Han,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Index of Nursing Students”*Journal of Korean Acad Nurs Adm*. Vol. 21, No. 5, pp. 501-510, 2015.
- [19] M. Y. Han, Y. S. Kim, M. K. Je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in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 *Journal of Crisisonomy*, vol. 12, No. 6, pp. 53-65, 2016.
- [20] Kleinbaum, D. G., Kupper, L. L., & Muller, K. E., Applied regression analysis and other multivariate methods. Boston, MA: PWS-KENT Publishing Company, 1988.
- [21] J. H. Park, G. Y. Jo. “Predictors of subjectives happiness for male nurs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Vol. 27, No. 2, pp. 511-522, 2015.  
DOI:<http://dx.doi.org/10.7465/jkdi.2016.27.2.511>
- [22] W. H. Jun, K. S. Cha and Lee, K. L,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7, No. 2, pp. 511-522, 2016.
- [23] Lyubomirsky, S. and Lepper, H. S.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No.46, pp. 137-155, 1999.
- [24] I. J. Kim, Positive psychology, Mulpure, Seoul, 2016.
- [25]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6] Je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197411, pp. 107-124, 2008.
- [27] Zimet GD, Dahlem NW, Zimet SG, Farley GK.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52, No. 1, pp 30-41, 1988.  
[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
- [28] H. R. Lee, J. Y. Song,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5, No. 2, pp. 393-407, 2004.
- [29] Lee, Y. M., Schwarzer, R., & Jerusalem, M. (1994). 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Retrieved September 2, 2009, from <http://userpage.fu-berlin.de/~health/korean.htm>
- [30] Y. M. Lee, R. Schwarzer, M. Jerusalem, 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1997, <http://userpage.fu-berlin.de/~health/korean.htm>, cited 2014 November.
- [31] L. A. Braskamp, S. L. Wise, D. D. Hengstler,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1, pp. 494-498,

1979.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71.4.494>

- [32] Y. H. Kim,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an"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1, pp. 104-113, 2016.

권 영 채(Kwon, Young Chae) [종신회원]



- 2012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 박사)
- 2015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수료
- 2012년 10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지역사회
- E-Mail: nahante55@hanmail.net

정 추 영(Jeong, Chu Young) [정회원]



- 2014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정신보건

- E-Mail : jcy0902@dhc.ac.kr

서 영 숙(Seo, Young Sook) [정회원]



- 2011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초간호학, 간호관리학, 만성질환

- E-Mail : seo1657@hanmail.net